

외교 이슈와 레버리지 거래 부각

[Market Analyst] 최유준 수석연구원 ☎ (02) 3772-1964 ✉ junechoi1@shinhan.com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한-중 관계 이슈와 FOMC 블랙아웃 기간

국내 증시는 사흘 연속 하락 마감. FOMC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한-중 관계 이슈와 증시 내 레버리지 거래 청산 영향도 작용한 영향. 지난 주말 미국 3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 무역수지 적자 지속과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등 이슈가 작용하면서 원화 절하 지속. 외국인 수급 유인이 부재. KOSDAQ은 사흘 동안 6% 하락. 신용융자 잔고가 10.5조원을 상회한 가운데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군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짐. 양 시장 거래대금은 21조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관망이 우세. 중화권 증시도 하락, 미-중 갈등과 기업 실적 경계감이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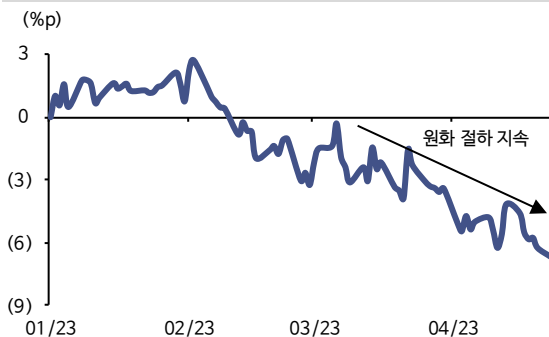
자동차, 의류, 의약품 제외한 대부분 업종 약세

자동차, 의류, 의약품이 방어주 역할을 하며 이를 제외한 업종은 약세. 유틸리티, 2차전지, 운송, 건설에 약세 집중. 1) **자동차**: 견조한 실적으로 방어주로서 역할과 한미정상회담 기대감도 일부 반영. 2) **의약품**: 수급 공백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최대 실적 발표. 3) **유틸리티**: 유통주식수가 적은 가스주를 중심으로 급락이 나타난 영향. 4) **항공 및 중국소비**: 한-중 관계 냉각 우려를 지속 반영. 일부 종목은 낙폭 축소 마감. 5) **건설**: 지난주 금요일 현대건설 실적 호조 영향 반영 후 주택건설사 중심으로 하락

CFD 및 신용거래 등 레버리지 관련 물량 청산에도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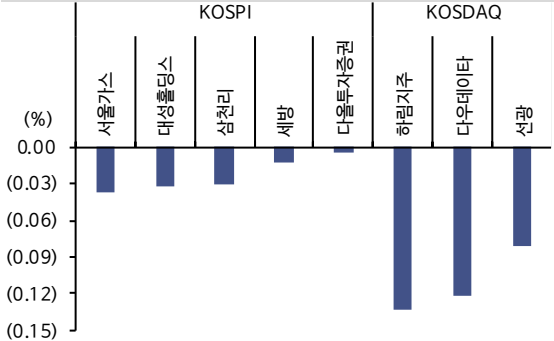
일부 종목이 급락하며 하한가 마감. CFD 거래 청산을 비롯해 여러 원인 추정 있으나 신용잔고율이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구간에서 레버리지 관련 물량의 청산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수급이 시장 전반의 투심을 훼손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정 능력을 찾아간다는 것에 무게. 현재는 정책과 실적 불확실성 통과 구간으로 판단. 주식시장의 명확한 방향성은 1) 미국 기술주 실적, 2) 한미정상회담, 3) 5월 FOMC를 통과하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

달러인덱스-원/달러 상대강도 추이



자료: KOSCOM, 신한투자증권

당일 하한가 종목의 지수 하락 영향력



자료: KOSCOM,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유준).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